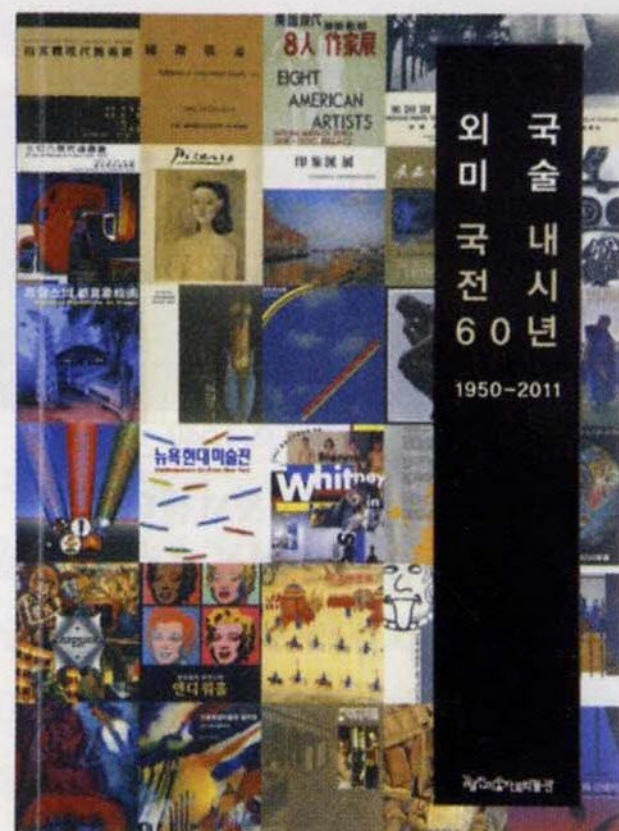


ART BOOK



외국미술이 우리미술에 남긴 것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1950-2011》, 2012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최근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을 펴냈다. 이 책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열린 외국미술전시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책이다. 다각적인 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에서 선보였던 도록, 팸플릿, 잡지, 신문기사, 포스터, 입장권 등 다양한 자료가 소개됐고, 지난 60여 년 간 국내에서 열린 외국미술전시의 단체전(유물전 포함) 개인전 연표, 전시분석과 통계, 시대별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슈, 외국미술의 국가별 유입과 전개 등 외국미술 국내전시의 다양한 측면을 담았다.

놀라운 것은 지난해 《한국현대미술 해외 진출 60년》을 내놓은 지 1년 만의 성과라는 사실이다. 김달진 관장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한다. “몇 십 년 간 자료 수집을 꾸준히 해

와 전시 관련 자료도 대부분 실물로 가지고 있고, 1995년에 펴낸 저서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과 같은 축적물이 있어서 가능했다.”

하지만 60여 년의 전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료는 누가 정리해도 100% 완벽할 수 없다. 1차 자료를 정리해야 그다음에 누락된 것을 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 그 기초 작업이었다. 전시자료, 일간지, 잡지, 미술 연감 등 현재 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이 책에 정리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950년 이후 국내에서 열린 첫 외국 전시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벨기에현대미술전〉이다.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국내에 소개되는 외국미술전시가 늘어났고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고, 이무렵 미술품 수입개방화가 이뤄지면서 외국미술전시가 붓물 터지듯이 증가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미술계 전문가 16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열린 외국미술전 가운데 기획력이 가장 돋보이는 전시로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책은 수많은 자료를 단순히 정리하는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미술전시가 한국미술계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 관장은 “내가 강조하는 것은 자료를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료에 학술적 가치를 부여해서 활용 면에서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자료집 한 권이 역사를 환기시킴으로써 새로운 연구 대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모여 더욱 풍부한 아카이빙이 가능해진다. 사실 수집가는 많지만 대부분 개인 취향과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김 관장의 경우 자료실을 거쳐 오늘의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자료 활용에 매진하고 공유함으로써 미술계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겐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공간문제이다. 지금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2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제대로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매년 자료집을 출간하는 김 관장에게 다음 출간할 단행본의 주제를 던지시 물어보았다. “오늘날은 개별 창작이 중심이 되면서, 미술 단체의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과거에는 목우회, 백양회, 현실과 발언 등 수많은 미술 단체가 있었다. 한국 미술계에서 어떤 미술단체가 생겼다가 사라졌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김달진은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1981~1996)에서 근무했으며,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을 지냈다. 1999년 한국신지식인에 선정됐으며, 201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1995), 공동저서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가 있다. 현재 김달진미술연구소장,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한국미술정보센터 관장,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